

추 도 사

가산당 지관대종사님,

지금이라도 청하면 낭랑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벌써 스님께 의지했던 사부대중이 이렇게 모여 스님을 그리워하며 다음의 인연을 발원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추위가 무엇을 시샘하여 기승을 부리는지 모르지만, 정이 우선하는 슬픔은 스님의 다음 생을 샘하는 부족한 중생의 미진(微塵)이라 여기시고 오늘 하루 너그럽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에 계실 때처럼 항상 어리석고 부족한 후학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는 간곡함에 스님의 여향(餘香)이 차분히 내려앉아, ‘아무 데도 가지 않는데 왜 호들갑이냐’고 하시지만, 이제 또 누가 있어 정법안장과 파사현정의 깊은 뜻을 들려주겠습니까.

향화(香花)를 올리는 이 시간의 깊은 뜻으로 남아 있는 중생의 상심과 불안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지혜로 승화되니, 인연의 마디를 또 하나 매듭하는 찰라에도 이 생의 인연자(因緣者)들은 서로가 보이는 감화의 묵언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

팔십 평생을 하루로 삼아 후회할 시간조차 아끼셨던 까닭이 부처님의 교법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행복임을 저희들은 알기에, 한 시각도 허비하지 않고 주석한 곳곳에 대중의 기풍을 진작시킨 헌신은 사표로 우러르기에 벅차기만 합니다.

과거를 이어서 미래를 열겠다는 원력으로 여념 없으셨던 필생의 실천은 불교의 사상과 문화가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저변을 확대해가며 불법홍포와 중흥의 근간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출가사문은 사사로운 나를 버리고 공공의 정신과 요익을 위해 살겠노라고 일생의 약속으로 서원하여, 불법은 정법의 유산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함께하여 모두의 미래에 평화를 맞이하겠습니다.

이 몸으로 향사세계(恒沙世界) 두루하여서 미진겁이 지나도록 도생하리라고 발원하시고 모두 열반상에 높이 앉아서 중생 위해 열반가를 제창하리라고 다짐하셨으니, 이제 본래 서원 잊지 마시고 하루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오시어 일대사 인연 밝히시고 널리 못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인연을 베푸신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의 은혜를 갚기 위해 푸른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어디에서 그 푸른 눈으로 저희를 지켜보시겠습니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표로 삼아 그와 같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종도의 큰 화합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겠습니다.

불기2556년 2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